이천이십삼년 | 봄호(통권 21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의 창 | 조남호 남측편찬위원장

**남북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전 원고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집중 탐구

'남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

이 계절의 책

북한의 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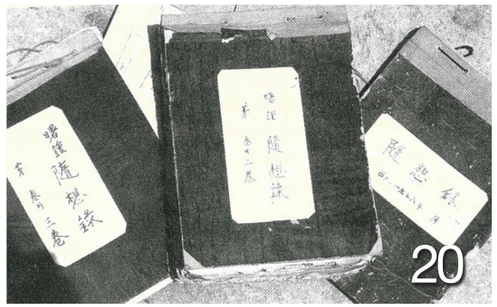
목차

겨레말 | 이천이십삼년 | 봄호(통권 21호)









02 겨레의 창
남북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전 원고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 조남호

06 집중 탐구
'남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 · 고대영

10 심상
탐라에 스민 몽골어 · 이상엽

겨레말 탐구생활

14 남녘말 북녘말
따따산 아르목 · 박복희

18 뜻풀이 깁고 더하기
할 일을 미루는 단어 · 주영훈

20 우리말 보물찾기
농부가 살려 쓰는 우리말 뒷얘기 · 김영호

알려드립니다 | 《겨레말》 봄호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1회 펴냈던 《겨레말》 소식지가 '겨레말 누리판(웹진)'과 통합돼 매년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더 다양한 겨레말큰사전 소식을 담겠습니다.

일러두기 | ①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합니다.
②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겨레말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www.gyeoremal.or.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겨레말 사람들
모순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처장
'끊어지지 않게 계속'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이어가며

27 이 계절의 책
북한의 국어사전 · 임보선

30 겨레말 소식

32 겨레말 낱말 풀이



청보리 물결로 넘실거리는 제주

평안도 출신의 석주명은 '나비 박사'로 알려져 있지만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제주도 방언집』을 포함해 『제주도 총서』 6권을 남기며 제주학 연구의 기초를 세운 언어학자이자 박물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 방언집』에서는 몽골을 여행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국 학자로서는 최초로 몽골어 차용어를 수집, 정리하기도 했다(본문 10쪽에서 13쪽).

사진 제공: 이상엽

펴낸이 민현식
펴낸날 2023년 5월 1일
펴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기획홍보부 02)3275-0815
디자인 해든디앤피
인쇄 (주)태광P&D

남북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전 원고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글 **조남호**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장



↑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2005. 2. 20., 금강산)

남측편찬위원장으로서의 다짐

제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인연을 맺은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사업회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04년 12월 11일에 남측편찬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아직 사업회가 출범하기 전이어서 서울 혜화동의 어느 음식점에서 함께 만났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연이 시작된 첫 자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몇 사람이 대표로 북측과 편찬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강산으로 갔는데 저도 그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책으로만 알던 정순기 선생님(북측 편찬위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교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돌아보니 금강산 회의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 중에 여전히 남은 사람은 저뿐이라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새삼 느낍니다.

2005년 2월 19일~21일 금강산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편찬의 시작을 알리는 결성식과 제1차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남측편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이 될까 하는 의문이 없지 않았는데 결성식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담당자가 저였기에 저는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이자 편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편찬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연임이 계속되어 7기가 구성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제 편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항상 편찬위원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만 했는데 이제 위원장이 되니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선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으니 이제는 즐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편찬사업이 시작될 때 이렇게 오래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교류가 막히면 공동회의도 결국에는 중단되곤 했습니다. 남북의 사전 편찬자들이 만나 협의하면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남북 교류가 힘들어질 때마다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정이 밀리면서도 편찬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의 덕분이고 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의 덕분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거명할 자리가 아니지만 이분들의 도움을 기억하며 기대했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편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남북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가치가 큰 사업입니다. 지금은 별로 쓰지 않는 듯하지만 1990년대에는 '남북 언어 이질화'라는 말이 학계나 정책 계통에서 자주 쓰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 '남북 언어 이질화'라는 문제가 처음 부각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에서 간행된 출판물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학계에서 북한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습니다. 그러

> 강산이 두 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남측편찬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회 편찬실에서 편찬 실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고민과 헌신이 쌓이면서 남측편찬위원회의 역할은 바뀌고 있습니다.

면서 남북의 언어 차이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과 노력이 활발했습니다. 많은 논저가 나왔고 국가 예산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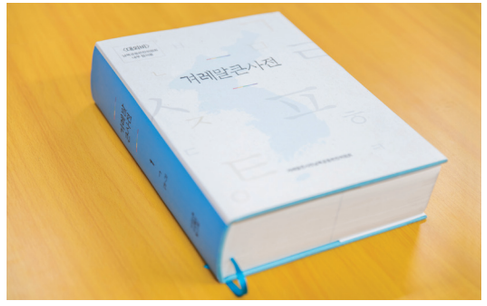
1999년에 간행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이 분위기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대거 수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북한의 전문가들을 만나 직접 도움을 받으면서 표제어를 고르고 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1992년에 간행된 《조선말대사전》 등 출판물을 확인하면서 표제어의 선별과 풀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모두 언어 사용에 관해 규범적인 태도가 강합니다. 실제로 쓰는 것과 쓸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것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간헐적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책을 통해 짐작한 언어 상황과 북한의 학자들이 알려주는 실정이 달라 학계에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책에 밝힌 대로만 언어생활을 하지는 않는 게 우리와 마찬가지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 때도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북한의 언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협의를 통해 사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남북의 실제 언어 상황을 파악하면서 사전 원고가 다듬어져 왔습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크게 다르고 교류가 없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오해하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사전 편찬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수많은 단어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편찬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상호 이해가 깊어졌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겨레말큰사전》은 한 단계 나아간 성과물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성과물로 나오는 사전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남북 협의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논의 과정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제25차에 이르는 공동회의 기간에 남북의 참석자들은 많은 단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전 원고는 분담하여 집필하고 상호 검토하여 최종 합의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검토를 거치지 않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편찬될 사전에는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건조한 문투로 길어야 몇 줄의 문장으로 정리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길게 협의했던 내용들은 남북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급한 업무에 밀려 정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논의했던 자료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절한 때에 정리된다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중요한 또 하나의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전 원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시간

강산이 두 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남측편찬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전에 경험이 많은 편찬위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편찬 방향을 정하고 지침을 정비하던



↑ 북측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10권 1질)

초기 공동회의는 남북의 편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회 편찬실에서 편찬 실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고민과 헌신이 쌓이면서 남측편찬위원의 역할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남측편찬위원회의 회의는 결정하는 자리에서 조언하는 자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편찬위원들께서도 조언하는 역할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만남이 중단되면서 편찬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남북의 사전 편찬자들이 만나지 못하면 일이 진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를 기약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북측과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만든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10권을 아직 북측에 전달하지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북의 협의를 거쳐야만 완결이 되는 사전이므로 일방적으로 완료할 수도 없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가 전면 중단된 현재로서는 남북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불가피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회가 많이 알려지면서 남북의 언어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언젠가는 남북 교류가 재개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남북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내실을 다질 기회입니다. 한창 사전 편찬이 바쁘게 진행될 때는 사업회 편찬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해 나가기조차 버거워 차분하게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업회는 남북 언어 문제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20년 가까운 시기 동안 남북의 언어를 놓고 고민한 집단은 달리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관련 사업도 펼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 또한 사전 편찬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하게 사전 원고 작성, 교열이라는 한 방향만 보고 달려왔지만 지금은 편찬원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남북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경험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다시 남북의 협의가 진행될 때 사전 원고의 깊이를 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남측편찬위원회에서도 사업회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편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좋은 사전으로 보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조남호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1991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립국어원 연구사, 연구관, 어문연구실장을 지냈다. 2005년부터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제7대 남측편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남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

글 **고대영** 겨레말큰사전 편찬부장



전문용어란 특정한 분야나 직종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어휘를 말한다.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소송(訴訟)’, ‘기소(起訴)’, ‘피고(被告)’, ‘원고(原告)’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구별되며, 한 단어가 일반어와 전문용어로 모두 쓰이면 쓰인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기각(棄却)’이 일반어로는 ‘물품을 내버림’이란 뜻으로 쓰이는 데 반하여 법률 전문용어로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달리 쓰이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용어는 해당 전문 분야의 지식 체계를 드러내는 일종의 표상이며 해당 전문 영역 안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측 전문용어 사업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관심이 체계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21세기 세종계획’부터로 보인다. ‘21세기 세종계획’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를 자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으로 10년간(1998년~2007년) 추진되었으며 전문용어 표준화 분과에서는 전문용어 개발 환경 조성, 전문용어 표준화,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진행하였다. 최종 결과물로 ‘생물, 의학, 전산, 기계, 화학공학, 물리, 화학, 수학, 전기전자,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용어와 그 한·영·일 대역어 정보를 담은 ‘전문용어 검색기’를 배포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2005년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전문용어 표준화 등에 대한 사업이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격상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신설 2017. 3. 21.〉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21.〉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 9. 19.]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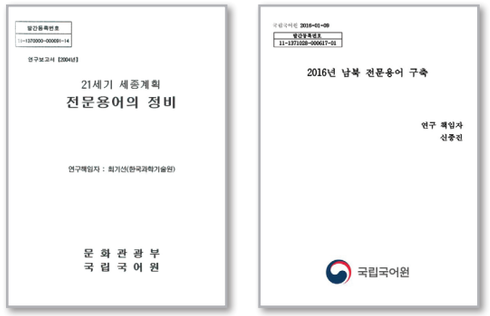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3.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9.]

「국어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체계화하여 보급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조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제12조)과 표준화·체계화 절차(제12조의2)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따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서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추진 사업은 크게 ① 남측 전문용어 표준화 및 순화, ② 분야별 공공용어 정비, ③ 남북 전문용어 구축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의 세부 용역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용어총괄관리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 영역의 결과물인 용어 자원을 통합 정비 및 관리하게 된다. 이렇듯 이미 전문용어와 관련해서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대상·적용 범위가 지리적으로 남측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업회가 전문용어 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해야 할 필요와 당위가 드러난다.



↑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 정비 관련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

사업회의 전문용어 사업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사업으로서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업회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도 《겨레말큰사전》의 조속한 편찬을 위해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준비하는 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편찬위원회는 2015년 제25차 공동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완간 이후 전자사전 및 전문용어 사전 개발 등의 후속 사업 이행에 합의한 바 있다.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의 증보와 함께 변화하는 사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자사전 개발의 필요성과 남북 교류협력 현장에서 전문용어의 남북 언어 이질화가 크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남북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합의 결과이다.

[표1] 컴퓨터 용어는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에서 선별한 용어가 남북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 [표2]는 경제 용어의 남북 차이를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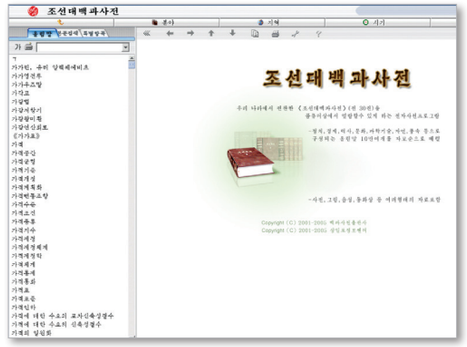
[표1] 남북의 컴퓨터 분야 전문용어

남	영어	북	비고
단축키	keyboard shortcut	지름건(--鍵), 단축건(短縮鍵)	
탭	tab	타브	검색선택타브(북)
전환키	switch key	절환건(切換鍵)	한영 전환키(남)
팝업메뉴	popup menu	보조메뉴	
도구모음	tool palette	메뉴띠	

[표2] 남북의 경제(회계) 분야 전문용어

남	영어	북	비고
차변(借邊)	debit	계산자리왼쪽, 차방(借方)	
대변(貸邊)	credit	부방(負方), 원천면(源泉面)	계산자리오른쪽 (북측 미등재어)
계좌(計座), 계정계좌 (計定計座)	account, accounting	예금돈자리 (預金---)	
계정계좌표 (計定計座表)	chart of accounts	계산자리표 (計算--表), 계시안(計示案)	
도구모음	tool palette	메뉴띠	

위와 같이 전문성이 낮은 용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문성이 높은 용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각 측의 언어 직관으로 상대방의 어형을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용어 차이를 보인다. 사업회에서는 기존의 《겨레말큰사전》 편찬 준비에 더해 2022년부터 남북이 합의한 후속 이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남측에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



↑ 《조선대백과》 전자사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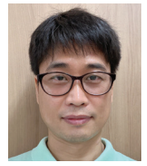
히 전문용어 부문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라 본격적인 사전 콘텐츠 개발에 앞서 해야 할 자료 수집, 정리 작업의 규모가 상당하다.

먼저 남측 각 전문 영역의 전문용어를 수집하여 정리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각 전문 영역에서 출판한 전문용어집의 용어에서부터 출발하여 최신 용어의 채집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측도 남측과 동일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나 공동회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측과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통한 자료 수집을 포함하여 남측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측 각 전문 영역의 전문용어를 수집하여 정리한 데이터를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전문용어 데이터가 확보되면 상위 용어(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와 개념을 기준으로 남북 용어를 대조한 결과까지를 포함한 '남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일단락될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남북 전문용어 사전에 수록될 올림말을 선정하고 이후 사전 편찬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1차 합의 원고를 완성할 수 있을 것



↑ 남측에서 발행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집

이다. 현재 사업회에서는 이 '남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고대영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1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3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제주도 정방폭포 전경. 2천 년 전 진나라 서복이 왔었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곳이다.

탐라에 스민 몽골어

글 · 사진 **이상엽** 사진가



↑ 제주의 풍광 속에 선 석주명. 그는 이곳에서 3년간 연구하며 제주 총서 6권을 집필했다.



↑ 석주명이 쓴 『제주도방언집』 표지

석주명(石宙明)은 우리에겐 그리 익숙하진 않지만, 동물학자로 특히 한국 나비에 관해서는 박사라 할 만한 사람이다. 일제강점기 때 가고시마대학 농림학부를 졸업하고 개성 송도고보에 재직하면서 전국 각지로 나비 채집 여행을 떠났다. 그 후 영국 왕립아시아협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에 서식하는 나비들의 동종이명 총목록을 작성한 『조선산 접류 목록』을 1940년에 출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나비 학자로 우뚝 서게 된다. 그는 이때 만주와 몽골 지역을 두루 다녔고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현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아 제주도 곳곳을 답사하며 나비뿐만 아니라 자연, 방언, 인문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 연구를 진행했다. 이때 『제주도방언집』 등 제주도 총서 6권을 남겨 제주학 연구의 기초를 세우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방언집』에서는 몽골을 여행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국 학자 최초로 몽골어 차용어를 수집, 정리했다.

제주어는 따로 존재하는가?

제주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만 년~1만 8천 년 사이로 본다. 이는 육지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지만, 화산 활동에 의해 인류가 생존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다. 또한, 신석기 시기에 또 다른 인간들이 제주로 이주했고 이들의 흔적은 제주 곳곳의 동굴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제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진수(陳壽, 223~297)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주호'로 알려져 있다. 말은 삼한과 같지 않다고 했다. 이는 원시 한국어의 한반도 이동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고, 기층의 주호어에 마한–



↑ 제주 중산간에서 질주하는 말들. 중산간은 특히나 몽골 초원과 비슷해 원나라 시절 100년간이나 이곳에 대형 말 농장이 존재했다.(사진 제공: 제주관광공사)

백제–신라–고려의 이주민에 의해 한국어가 쌓이는 형식으로 변해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1세기 이전, 탐라라 불리던 시절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고려의 제후국 위치를 가졌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때 쓰이던 말을 탐라어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자주 쓰이는, '제주어'라는 명명에서는 제주의 언어를 지역방언으로서의 '제주 방언'이 아니라 한국어족에 속한 별개의 언어로 분류하고자 하는 뜻이 엿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주어' 명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제주'라는 명칭은 고려 중후반에 사용된 지명이고 제주어라면 분명 중고(中古) 시기 한국어의 방언적인 성격이 크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현대 제주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외래 요소는 몽골어의 흔적이다. 현재 240여 개의 단어(석주명이 정리한 단어 기준, 현대 국어학자들은 검증된 약 60개 정도로 축소)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려 말 100년간 원나라의 점령 시기에 이식된 것이다. 고려 원종 때 끝까지 저항하던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여몽 연합군에 의해 섬멸된(1274년) 뒤, 몽골군은 제주에 상주하게 된다. 이후 100년 동안 제주도는 원나라의 14개 국영 말 목장 중 하나로 운영되며 1천 명에서 3천 명 정도의 몽골인이 상주하게 된다. 초기 제주의 인구는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말 목장은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여몽 혼혈인의 수도 증가했다. 공민왕 당시 일어난 '목호의 난'[1]은 제주도민들이 몽골인들과 합세해 저항해 최영의 진압이 매우 어려웠다. 이후 명나라가 원나라의 왕족들을 지속해서 제주도에 유배시키면서 제주도의 언어, 음식, 복식, 풍습에 큰 영향을 끼쳤다.

1) 고려 공민왕 21년(1372년)에 제주도의 목호(牧胡, 고려 때,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던 몽고인)들이 일으킨 반란. 명나라가 제주 말 2천 필을 요구한 것에 반대하여 일어났으며 2년 뒤인 1374년에 최영에 의해 진압됐다.

> "현대 제주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외래 요소는 몽골어의 흔적이다. 현재 240여 개의 단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려 말 100년간 원나라의 점령 시기에 이식된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보고 제주

조선어에 몽골어 차용어가 꽤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정리한 이들은 외국 학자였다. 동경제국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고려사(高麗史)』에 등장하는 몽골어 어휘 43개를 고찰했고(1929년), 프랑스 학자 폴 펠리오는 구라키치의 논문에 기초해 『고려사에 실려 있는 몽고어』(1930년)를 썼다. 하지만 이 논문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연구되지 못했고, 1943년 석주명에 의해 비로소 제주도 현장에서 연구된다.

대체로 우리말에 있는 몽골어 차용어는 제주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 주로 말, 마구, 음식, 복식, 군대, 관제에 관한 어휘에서 나타나는데, 중세 몽골어 'QARA'는 '가라' 즉 검은색을 말한다. 말안장을 묶은 뱃대끈을 '오랑이'라 하는데 이도 몽골어 'ORANG'에서 왔다. 또한, 제주에서는 집을 셀 때 '채'가 아니라 '거리'라 하는데 이는 몽골어 'GER'에서 왔고, 굴레를 뜻하는 '녹대'는 몽골어 'noγta'에서 왔다.

현재 이렇게 연구되는 제주어와 몽골어의 상관관계는 더욱 깊겠지만 학계의 관심 밖에 있는 주제로, 연구자의 수도 턱없이 부족해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는 형편이다. 석주명이 본 제주 문화의 다양성과 자연의 특별함은 제주도 총서 6권으로 남았지만 그를 이어 깊고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내는 후학이 없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제주를 여전히 변경의 섬 또는 관광지 정도로 생각하는 타자의 시선이나, 몽골에 의해 100년간 점령됐던 역사 부정의 심상이 존재하는 까닭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불현듯, 제주의 현대사뿐 아니라 800년 전 중세 제주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든다.



이상엽

다큐멘터리 사진가. 《농민신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변경의 역사〉 등 여러 전시를 하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잊어버린 표정이 있다』, 『변경지도』 등 다수의 책을 썼다.

따따산 아르목

글 박복희 시인



따따산 아르목

음력설 밑이라 그런지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따뜻하기만 하던 날씨가 요즘 들어 갑자기 추워졌다. 물론 눈은 한 **꼬치**도 내리지 않는 강추위였다. 뉴스에서 다른 중부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막히고 차 사고가 난다고 난리법석이어도 우리 **집오래**는 무사태평으로 바람만 냅다 불고 만다.

남쪽 지방에 내려온 지 석삼년 되도록 눈 구경 한번 못 해본 나는 다른 지방에서 눈이 온다는 뉴스가 나올 때면 집오래 **어느메**서 눈이 오나 보다가 거기까지 가서 눈밭에 누워 **딩굴어** 보고 싶은 생각까지도 해봤다.

그러는 나에게 남편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 별생각 다하누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생각으로 한 말이었겠으나, 나에겐 썩 좋은 생각으로 하는 말 같지 않아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말 타믄 경마 잡히고 싶단 말 괜히 나왔갔시오? 그게 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깐 그런 생각두 나는 기죠."

남편이 한마디 할 새 나는 두 마디를 했다. 북한 사람인 아내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는 남편이 **마깝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춥다, 춥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나는 온돌방 생각이 났다. **따따산 아르목**에 누워 등을 지지면 좋을 것 같았다. 아르목 대신 게르마늄 침대에 스위치를 켜고 이불 밑으로 파고 들어간 나는 머리만 쏘옥 내밀고 TV를 켰다.

봉가집 식구 같은 명희

그렇게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손전화** 소리가 울렸다. 얼른 인나 앉으며 전화를 받았다.

"응 명희야, 어케 전화하니? 잘 있지?"

"응 언니두 잘 있지?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시오."

"기래? 어그야! 고맙다야! 긴데 시방 어디야?"

"지금**꺼정** 일하고 집에 가요. 시방 엘리베이터 승강장 안이야요."

혼자 영업하는 동무는 아침에 매대에 나가서는 저녁 늦게 퇴근한다.

"긴데 네가 맹글어 파는 빵은 사람덜이 잘 사가니?"

"그럭저럭 나가요."

"넌 정말 용타야! 아무튼간 몸조리 잘하면서 일해라. 길다가 아프믄 큰일난다. 알갔디?"

"응. 알갔시오, 언니! 언니두 몸조리 잘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나는 갑자기 골이 아팠다. 손전화기 속에서 오래간만에 **봉가집(본가집)** 식구같이 반가운 동무의 엿보이는 그의 고달픔에 마음이 아파서인 것 같았다.

「따따산 아르목」에서 **굵게 표시된 단어**들을 '남녘말 북녘말 톺아보기'(다음 16쪽~17쪽)에서 찾아보세요.



박복희

시인. 1980년 북한사범대학 어문학부 졸업, 고등중학교 국어문학 교사로 재직했다. 2011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2015년 〈월간 시사문단〉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워낭소리』(2020), 『약속』(2021) 등이 있다. 현재 한국시사문단 작가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망명북한작가 회원, 사업회 북한 토박이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녘말 북녘말 톺아보기

꼬치

《조선말대사전(2017)》

꼬치[1] [명]
① 실을 켜기 위하여 솜을 얇게 펴서 둥글게 말아놓은 것. ‖ 솜으로 ~를 만들다.
② 하늘에서 성글게 떨어지는 눈송이나 비방울 같은 것. ‖ 눈~. 비~.
③ 이름수의 단위로 쓰인다. | 컴컴하게 흐린 하늘에서는 한꼬치 두꼬치 흰눈송이가 날아 떨어지고있었다.

명사 **꼬치**는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만 수록된 말로 '고치'의 북녘 표기이다. 북녘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나 빗방울을 둥글게 말아 놓은 솜 고치에 비유하여 '눈꼬치', '비꼬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꼬치는 '눈 한 꼬치, 두 꼬치'처럼 수량을 세는 단위로도 쓰이며, 중국 동포사회에서도 북녘과 같은 쓰임이 나타난다.

집오래

《조선말대사전(2017)》

집오래 [명]
집에서 가까운 부근. ‖ ~의 터밭. ~를 말끔하게 정돈하다. | 홍씨는 방금이라도 남편이 불쑥 들어서기라도 할 듯 집오래를 쓸고 방안의 살자리도 털어내고 방안도 알뜰하게 거두었으며 부엌도 비다듬어놓았다.(중편소설 《설죽화》)

명사 **집오래**는 '집'에,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그 가까운 부근을 뜻하는 말 '오래'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는 '마을오래, 터오래, 한오래' 등 '오래'가 결합된 단어가 많이 수록돼 있다.

어느메

《우리말샘》

어느메 [대명사] [방언]
'어디'의 방언(평안).

딩굴다

《조선말대사전(2017)》

딩굴다(딩구니, 딩구오) [동](자) = 뒹굴다. | 금시 길바닥에 마구 딩굴기라도 할듯이 힘껏 붙안고 빙빙 돌았다.(장편소설 《류랑아들》)
◇**딩굴 자리 보고 씨름에 나간다** 《일을 하기 전에 자기의 력량과 그 일의 경위를 따져보고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동사 **딩굴다**는 남녘에서는 '뒹굴다'의 비규범어로 다루지만 북녘에서는 '뒹굴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규범어이다. 중국 동포사회에서도 흔히 쓰이는 단어이다.

마깝다

《조선말대사전(2017)》

마깝다 [–따] [형] = 맞갖다.

맞갖다 [맏깓따] [형]
① (마음이나 입맛에) 바로 맞다. ‖ 맞갖은 음식. 맞갖은 일자리.
② (주로 《맞갖지》형으로 《않다》와 함께 쓰이여) 마음이나 입맛에 맞지 않다. ‖ 맞갖지 않은 음식. 맞갖지 않은 일. ㊐마깝다.

형용사 **마깝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평북 지역의 방언으로 수록돼있으나 2017년 개정된 《조선말대사전》에 '맞갖다'의 같은말로 처음 수록됐다. '맞갖다'와 마찬가지로 '마깝다' 역시 '마깝지 않다' 구성으로 많이 쓰인다.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는 관련된 단어로 '마깝잖다, 마깝잖이, 마깝하다'와 같은 단어가 함께 수록돼 있다.

따따사다

《우리말샘》

따따사다 [형용사] [방언]
'따뜻하다'의 방언(함경).

아르목

《우리말샘》

아르목 [명사] [방언]
'아랫목'의 방언(전남).
아르묵 [명사] [방언]
'아랫목'의 방언(황해).

손전화

《조선말대사전(2017)》

손전화 [–쩐–](–電話) [명]
① 손에 들고 다니면서 걸거나 받을수 있는 소형무선전화기. ㊐손전화기.
② 손전화기로 말을 보내거나 받는 전화.

휴대전화를 북녘에서는 흔히 **손전화**라고 한다. '손전화'는 2009년 《조선말대사전》 개정판까지도 수록되지 않다가 2017년 개정판에 처음 표제어로 수록되었다.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폰의 경우 북녘에서는 지능형손전화(기)라고 하며 특히 '길동무(내비게이션), 새세기(대사전), 의무(법규열람)'와 같은 봉사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꺼정

《조선말대사전(2017)》	《우리말샘》
–**꺼정** [토] 《방언》 –까지.(평북)	**꺼정** [조사] [방언] '까지'의 방언(강원, 경상, 충청, 함경).

본가집

《조선말대사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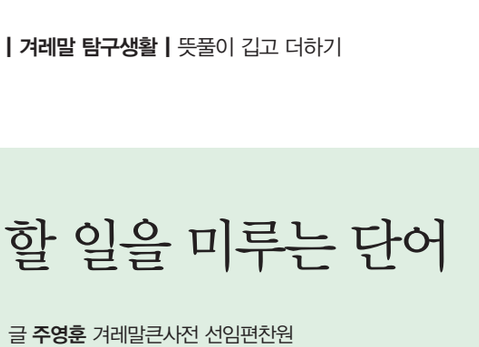
본가집 [–찝](本家–) [명]
=친정집②. ‖ 결혼후 3년만에 ~ 에 찾아온 셋째딸.
◇ **본가집이라면 늙은 할머니도 지팽이를 버리고 뛰여간다** 《시집간 녀자가 누구나 친정집에 다니러 가는것은 몹시 반가와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본가'는 남북 모두 흔히 쓰는 표현으로 여자의 친정집을 포함해 보통 따로 나와 살게 된 사람이 세간을 나기 이전에 본래 살던 집을 이를 때 쓴다. '본가'와 달리 **본가집**은 '친정집'만을 이르는 말로 풀이돼있으며 남녘에서는 같은 뜻의 말이 겹쳐서 된 겹말은 비규범어로 다루는데 북녘에서는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 '가(家)'와 '집'이 결합된 겹말 형태의 '본가집'을 규범어로 사전에 수록한 것이 다르다.

할 일을 미루는 단어

글 **주영훈**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얼마 전 '서로 할 일을 미루는 단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물을 보았다. 그 게시물에는 아래와 같은 그림이 있었다.



↑ 위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음란하다', '음탕하다'의 뜻풀이이다.

'음란하다'는 '음탕하다'로, '음탕하다'는 '음란하다'로 뜻풀이한 것을 단어가 서로의 일을 미루는 것에 빗댄 것이다.

사전에서 올림말을 뜻풀이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위와 같이 단어의 의미를 다른 단어로 돌려 정의하는 돌림 풀이이다. 실체가 분명한 명사보다 움직임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를 뜻풀이할 때 돌림 풀이를 하기 쉽다. 하지만 돌림 풀이가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명사에서도 돌림 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웹)》

관계(關係) 「명사」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
관련(關聯/關連) 「명사」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음. 또는 그 관계.

'관계'는 '관련'으로 풀이하고 '관련'은 '관계'로 풀이하는 돌림 풀이이다. 두 쌍의 올림말만 돌림 풀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셋 이상의 올림말이 풀이를 돌리는 경우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웹)》

액수(額數) 「명사」 돈의 머릿수.
머릿–수(머릿數) 「명사」 돈머리 따위의 수.
돈–머리 「명사」 얼마라고 이름을 붙인 돈의 액수.

'액수'를 풀이하며 '머릿수'를, '머릿수'를 풀이하며 '돈머리'를, '돈머리'를 풀이하며 '액수'를 쓰는 돌림 풀이이다. 실체가 분명한 명사의 경우에도 돌림 풀이를 보일 때가 있는데 아래의 예는 고유어와 한자어 관계에 있는 올림말 사이의 돌림 풀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웹)》

도구(道具) 「명사」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연장 「명사」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

'도구'를 '연장'으로, '연장'을 '도구'로 풀이하고 있다. 돌림 풀이는 이렇게 다양한 품사와 원어를 가진 올림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 풀이 방식을 피하여 새롭게 올림말의 뜻풀이를 수정해 보았다.

음탕하다(淫蕩--) [형] 색정에 빠져 방탕하다.
음란하다(淫亂--) [형] 색정에 빠져 추잡하고 난잡하다.

관계(關係) [명]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얽혀있는 것, 또는 그 사이.
관련(關連, 關聯) [명] 서로 관계를 맺어 이어져 있는 것, 또는 그 관계.

액수(額數) [명] 돈이 얼마인지 수량으로 나타낸 수.
머릿수(--數) [명] 돈의 액수.
돈머리 [명] 돈의 분량을 나타내는 수의 크기.

도구(道具) [명] 어떤 일을 할 때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
연장 [명] 물건을 만들거나 농사를 짓는 등의 일을 하는 데 쓰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전 올림말을 집필하거나 교열하다 보면 말의 뜻을 말로만 풀어내는 어려움이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위에서 예로 들은 올림말의 풀이도 아마 그러한 어려움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돌림 풀이는 사전 이용자가 올림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사전의 필요성에 의문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올림말이 다른 올림말에 의존해 단어가 가진 개성을 잃게 하지 않고 각각의 올림말이 지닌 고유한 말맛을 살릴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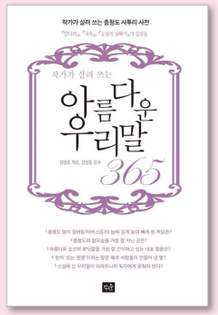


주영훈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2부 선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농부가 살려 쓰는 우리말 뒷얘기

글 **김영호** 시인, 문학평론가





←『작가가 살려 쓰는 아름다운 우리말 365』(김영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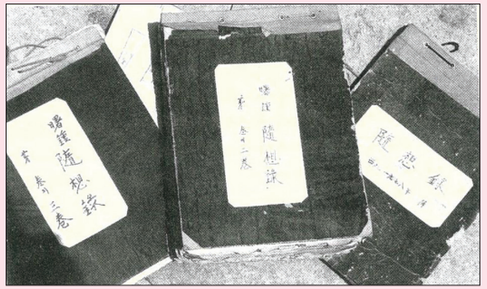


←『농부가 살려 쓰는 아름다운 우리말 417』(김장순, 2022)

농부 김장순의 삶과 우리말

저는 '우리말 지킴이'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작년 말 고인이 된 김성동이 자신의 작품에서 널리 활용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내 『작가가 살려 쓰는 아름다운 우리말 365』를 엮어 펴낸 바 있습니다. 뒤를 이어 농부로 살다 흙으로 돌아간 김장순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87년을 고향인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해 갈무리한 「내 고장의 잊혀가는 말들의 뒷얘기」를 바탕으로 『농부가 살려 쓰는 아름다운 우리말 417(아래 『우리말 417』)』을 작년 말에 내놓았습니다.

농부 김장순은 저의 선친입니다. 선친이 남긴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은 분들이 대개 그렇듯이 한자어를 많이 섞어서 편지지에 또박또박 쓴 것입니다. 원본을 여러 벌 복사해 책처럼 제본한 것을 자식이나 지인에게 나눠준 것을, 그간 간직해오다 이번에 '아름다운 우리말' 연속 기획으로 엮으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 농부 김장순이 쓴 자필 수상록들

이 글에서는 『우리말 417』을 중심으로 선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김성동 작가의 우리말도 곁들여 살피고자 합니다.

선친은 과부의 아들로 어렵게 고향의 면사무소 서기가 되었지만, 고향의 실력자인 인촌 김성수의 대학생 아들이 학병 징병을 피하고자 꾸민 '짝짜꿍'에 걸려 20대 초반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시바다니 조선소'에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특유의 강인함과 지혜로 밀선을 타고 일본을 탈출해 부산을 거쳐 고향에 최초의 귀향자로 돌아와 10개월의 일본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징용으로 고향을 떠난 기간을 빼곤 평생 고향 줄포면을 지켰습니다. '줄포(茁浦)'의 원래 이름은 '줄래'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출포'라 하던 것이 와전되어 '줄포'가 되었을 것으로 선친은 추측합니다. 지금도 면사무소 앞 논을 매립한 일대는, 갈대가 약간 있을 뿐 '줄'풀로 우거져 있음을 볼 때 '줄래'란 명칭에 수긍이 갑니다.

뱃고동 소리 멈추자 갈매기 떼도 사라지고 갯벌엔 애꿎은 나문재 풀만 무성한 폐항이 되어버린 줄포항은, 일제강점기엔 서해 중부 이남의 4대 항구(제물포, 군산, 줄포, 목포) 가운데 하나로 물자가 모이는 집산지이자 조선 쌀의 일본 수출항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줄포의 전성기엔 일본과의 서신 연락에 기다랗게 주소를 쓰지 않고, '조선 줄포항 아무개'로 통할 만큼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아래는 당시 줄포공립보통학교 교가입니다.

'서쪽엔 변산 솟아 있고 바다엔 위도의 경관일세/물자의 집산 성왕하여 세상에 알려진 줄포항/모이고 흩어지는 쌀 끊임없고 어물의 쌓임이 한이 없어라/바다 물결 잔잔하고 물 맑으며 세상에 알려진 줄포항'

선친은 미당 서정주 시인이 다닌 줄포보통학교를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미당은 그의 아버지가 인촌 김성수의 양아버지 겸 큰아버지인 김경중의 집 마름으로 일하게 되면서, 고창군 질마재[1]에서 줄포로 이사 와서 줄포보통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서정주 집안은 인촌 집안의 그늘에서 전답도 마련하는 등 생활 기반을 다져 '볏 백이나 얌전히 추수하는 소지주'로 머슴을 두고 돈놀이도 해 나중에 질마재에서 가장 큰 부자로 행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주의 시 「자화상」에서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는 표현은, 대지주가 아닌 마름의 처지를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길마처럼 경사가 급한 고개'를 뜻하는 방언(충남).

> 할머니가 과부로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하게 된 외증조모의 손자 사랑은 지극해서 풀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풀솜할머니'라 하나 봅니다.

귀 짜다, 소박데기, 풀솜할머니

선친은 김성수 아들의 뒷배를 봐주기 위한 짬짜미[2]에 걸려 억울하게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짬짜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말로, 『우리말 417』에는 사전에 말을 맞추는 '귀 짜다'가 나옵니다. 몇이서 귀 짜가지고 한 사람 골탕 먹이는 것은 해장감도 안 되며, 이는 사기꾼이나 사기 도박꾼들의 전매특허품이라고 탄식합니다. '짬짜미'보다 '귀 짜다'가 훨씬 생생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열세 살에 삼십 대 노총각에게 시집와 열일곱에 큰딸을 낳고 또 딸을 낳은 뒤 아들인 선친을 낳아 그 사랑이 유별났다고 합니다. 바닷가라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눈을 빗자루로 쓸며 아들의 등굣길에 앞장섰답니다. 아버지가 네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김성동 작가의 표현으로는 '땅보탬[3]이 되고') 더욱 아들 바라기로 살던 젊은 과부인 할머니는, 동네 유지에게 보쌈을 당해 이 씨의 아들과 딸을 낳았답니다. 일본 징용에서 기적처럼 돌아와 과부인 홀어머니를 모시고자 20대 중반의 총각(김성동, '꽃두루')은 팥처럼 예쁜 열아홉 '팥각시'(꽃을 두른 것처럼 예쁜 '꽃두레')인 박 씨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큰누님은 시집갔다 애를 못 낳아 소박맞은 소박데기[4]로, 친정에 돌아와 남동생인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이야 재혼이 흔하고 또 아이를 두지 않는 부부도 많지만, 당시만 해도 소박맞은 여인을 세상은 얕잡아 본 것입니다. '소박데기'라 할 때 접미사 '-데기'를 보면, 금세 '부엌데기'나 '새침데기', 나아가 '미친데기'까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과부로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하게 된 외증조모의 손자 사랑은 지극해서 풀솜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풀솜할머니'[5]라 하나 봅니다. 물론 시집살이하는 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친정어머니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욱 그렇겠지요. "친손주는 걸리고(걷게 하고) 외손주는 업고 간다."는 속담이 그런 경우입니다. 한때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집보내고 자주 볼 수 없는 딸에 대한 친정엄마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속담임을, 외손자와 친손자를 둔 지금은 제대로 압니다. 한편으로 "외손주 이뻐허느니 경상도 방앳고(방아깨비)를 이뻐허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손주는 예뻐해 줘도 장성하면 친손주에 비해 할머니를 방문하는 횟수도 적어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에, 차라리 방아깨비를 가지고 장난치며 노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뜻이라 합니다.

2)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3)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힘을 이르는 말.
4) 남편에게 소박을 당한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5) 외할머니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아빠냐 남편이냐

저는 지금껏 '엄마, 아빠'를 불러 보지 못했습니다. 애들의 언어가 없이 바로 어른의 언어를 배운 것이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기껏해야 어머니를 줄인 사투리 '어매'[6]나 '오매'[7]를 불렀지요. 저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막내는 늦둥이라 정겨운 호칭어 '엄마, 아빠'를 썼습니다.

그렇게 자라서인지 아들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엄마'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서 '어머니'라 부르라고 해 보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내가 놀라서 아들이 '어머니'라 부를 때 가슴 저리는 감동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아들이 어린애로만 보이는지 어느새 다시 '엄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딸 둘을 둔 40대 가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 엄마' 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말 417』의 「아빠냐 남편이냐」라는 글에는 남편을 '아빠'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한 선친의 과격한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아내를 엄마라고 불러 다오. 장모는 엄마의 엄마로 불러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애 아빠'를 그냥 '아빠'라 부르면 아내가 딸이 되고, '오빠'라고 부르면 아내가 여동생이 되는 셈이니, 심하게 말하면 패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적용해서, 남편을 '아빠'라 부르는 이치로 아내를 '엄마'로 불러 보면, 그 잘못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책을 엮으며, 남편에 대한 호칭인 '당신, 여보, 아빠'라든가, 다른 직업 없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여자 주인을 지칭하는 '주부' 등이 일본어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남겨 놓았습니다. '일본 여인네들이 남편을 부를 때 '도모짱(아빠)'이라 하고 대화할 때의 '안따(당신)'를 직수입한 것이란 걸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일이요. 창피스럽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 부쩍 늘어난 '주부'란 말도 일본의 월간잡지 《주부의 벗》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니 큰 각성이 필요합니다.

6) '어머니'의 방언(경상, 전라, 제주, 충남, 함경, 중국 길림성, 중국 흑룡강성).
7) '어머니'의 방언(경상).



김영호

시인, 문학평론가. 1984년 『한국문학의 현단계 Ⅲ』(창비)에 평론으로 등단하였으며, 대전교육연구소장, 대전작가회의 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문학평론집 『지금, 이곳에서의 문학』(2013), 『공감과 포용의 문학』(2019), 시집 『바람이 부르는 노래』(2021), 편저 『작가가 살려 쓰는 아름다운 우리말 365』(2022), 『농부가 살려 쓰는 아름다운 우리말 417』(2022) 등이 있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이어가며

지난 2021년 12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아래 ‘사업회법’)이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측과 만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시간, 6년을 더 확보하게 됐다. 사업 연한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겨레말 사람’. 2006년 2월, 사업회가 설립되던 해에 입사해서 2019년 6월부터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모순영 사무처장을 만나봤다.



↑ KBS 〈남북의 창〉 한글날 특집 인터뷰(2022. 10. 8.)



↑ 제55차 정기 이사회(2023. 2. 22.)



↑ 제3회 유네스코 ·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2022. 11. 3.~11. 4.)

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단장한 소식지 《겨레말》 봄호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간 연 1회 발행되던 소식지를 올해부터 계절에 맞춰 네 번 발행해 독자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겨레말큰사전》과 인연을 맺어온 각계각층 인사를 인터뷰하는 꼭지의 시작을 열게 된 만큼 앞으로 만나게 될 ‘겨레말 사람들’이 기대됩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예술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북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대에는 문학도로서 작가를 꿈꾸다가 2006년 사업회 초창기 구성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사업 연한이 7년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할 수 있게 될 줄 몰랐는데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어떤 대단한 결과보다는 과정 그 자체를 즐겁게, 최선을 다해 보내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어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완성하고자 했던 우리말 사전, 그 뜻을 이어 통일의 토대가 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제 외교·정치, 한반도 정세, 통일 정책 등 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업회도 지난 18년 동안 교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했고, 2016년부터는 7년 넘게 남북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침 속에서도 사업회는 총 25차례 공동회의를 열어 사전에 수록될 원고들을 합의해 왔고 지금도 회의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편찬성과를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 가제본과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발간하고,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겨레말 나들이’, ‘찾아가는 겨레말 문화학교’와 같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회를 포함한 남북문화교류사업 추진단체들이 매월 모여 원탁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록 남북교류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단절된 시간에도 편찬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1초의 고민도 없이, 2021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사업회는 2007년 사업회법이 제정된 이후 총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해 왔습니다. 세 번째 개정인 만큼 국회에서도 사업회법에 관한 여러 쟁점을 두고 심화된 논의가 오갔고 한편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명분과 그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질의와 자료 요청에 응답하고, 여러 관계자를 만나 설득

> ‘잇다’의 많은 뜻갈래 중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본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겨레말을 이어 제2의 말모이를 완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하는 모든 과정이 몹시 고단했지만 사업회 전 구성원이 우리 사업의 의미와 한계,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정으로 사전을 완성해 가는 길은 더디지만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고민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021년 12월 21일을 꼽고 싶습니다. 사업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그 현장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이 결과를 함께 이뤄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뭐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여건상 현장에 사무처장인 저 혼자 배석했지만 사업회 전 구성원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12월 22일부터 법적으로 보장받은 기한 안에 사업을 잘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들었지만요.

《겨레말》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찬란한 유산인 우리말과 글을 사전이라는 도구에 기록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통일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 안팎의

끝으로 사무처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겨레말’은 무엇인가요?

동사 ‘잇다’. 최근 사업회는 15년 동안 써 왔던 표어 ‘겨레말은 겨레얼입니다’에 이어 두 번째 표어로 ‘남과 북의 말을 잇다, 겨레의 꿈을 담다’를 만들었습니다. ‘잇다’의 많은 뜻갈래 중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본령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겨레말을 이어 제2의 말모이를 완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겨레말큰사전》이 완간될 때 ‘잇다’에는 우리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을 담은 용례가 들어가기를 바라 봅니다.

북한의 국어사전

글 **임보선** 겨레말큰사전 편찬전문위원



↑ 왼쪽부터 《조선말사전》(1960–1962), 《조선말대사전》(1992), 《조선말대사전》(2006–2007), 《조선말사전》(2010), 《조선말련관사전》(2012)

지금까지 북한에서 발간한 국어사전으로는 《조선어소사전》(1956), 《조선말사전》(1965), 《현대조선말사전》(1969, 1981), 《조선문화어사전》(1973), 《조선말대사전》(1992, 2006, 2017)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남한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제외하고 주로 대학교 연구 기관, 출판사 등에서 국어사전을 편찬하여 왔는데 북한에서는 사회 체제상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같은 국가 연구 기관에서만 국어사전을 편찬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비교하여 《조선말대사전》이 지닌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들 사전 가운데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말대사전》은 북한 최초의 대사전이다. 1992년 판에는 약 33만, 2006년 증보판에는 약 40만, 2017년 증보판에는 약 44만 개의 올림말이 실렸다.

올림말의 배열

《조선말대사전》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순으로 올림말을 배열한다. 겹자음 ‘ㄲ, ㄸ, ㅃ, ㅆ, ㅉ’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당 기본 자모 ‘ㄱ, ㄷ, ㅂ, ㅅ, ㅈ’ 다음에 분산하여 두는데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기본 자모들의 배열이 모두 끝난 다음, 즉 ‘ㅎ’ 뒤에 배열하고 있다. 초성 ‘ㅇ’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ㅅ’과 ‘ㅈ’ 사이에 두는데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모아쓰기에서 글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사용된, 음가가 없는 자음자인 ‘ㅇ’을 따로 두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올림말에 대하여 모음항을 따로 잡아 ‘ㅉ’ 다음에 배열하고 있다.

모음자의 배열순서도 차이가 있다.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 《조선말대사전》(1992, 2006, 2017)

는 해당 기본 자모 다음에 분산하여 두는데(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 ㅡ, ㅢ, ㅣ),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기본 자모 'ㅏ, ㅑ, ㅓ … ㅡ, ㅣ'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기본 자모 두 개가 결합한 모음(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ㅙ) 순으로 배열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 배열 순서 예시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가계→가관→가교→가구→가귀노름→가기→가끔→가새표→가시→가운데→가의→가지→가학→꼬마→나라→사랑→아이→자랑→하늘	가교→가구→가기→가계→가귀노름→가관→가시→가새표→가지→가학→가끔→가운데→가의→나라→사랑→자랑→하늘→꼬마→아이

올림말의 뜻풀이

올림말 다음에는 이에 관련한 언어 정보로 발음, 활용형, 원어, 품사,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등이 제시된다. 두 사전에서 제시되는 언어 정보가 같더라도 그 형식이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일례로 용언의 활용 정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모든 용언에 '-아/-어'와 '-니/-으니' 활용형을 제시하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불규칙 용언에만 '-아/어'와 '-니/-으니' 활용형을 제시한다.

규칙성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규칙 용언	막다 [막아, 막으니]	정보 없음
불규칙 용언	곱다 [고와, 고우니]	곱다 [고우니, 고와]

이와 같은 제시 형식이나 방식 차이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뜻풀이에서 볼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저작집 및 어록이 '당생활', '공업화', '관료주의' 등 일부 올림말의 뜻풀이 앞에 행을 달리하여 굵은 글씨로 실려 있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 뜻풀이는 그 저작집이나 어록에 기초하여 풀이되고 있다.[2]

2) 이와 같은 뜻풀이 방식은 《조선문화어사전》(1973)에서 시작되었다.

> "국어사전은 우리 겨레의 삶과 문화, 경험, 정서가 녹아 들어가 있는 우리말을 담는 그릇이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언어관과 언어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언어문화의 차이로 국어사전도 달라졌다."

다음으로 자립적인 뜻에서 갈라져 나오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뜻으로 세울 만큼 자립성을 얻지 못한 '반뜻'을 반달(D) 표시를 주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뜻풀이를 세분화하려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예를 용례를 제외하고 일부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곱다[2] [-따] (고우니, 고와) [형] 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상이) 마음에 들게 아름답다. D 귀하고 사랑스럽다. ② (만져보는 느낌이) 썩 보드랍고 거칠지 않다. D (천의 발이) 가늘고 부드럽다. D (가루가) 아주 잘고 보드랍다. D (때나 먼지가) 엷거나 가늘어 알릴듯말듯 하다. D (주름이나 금이) 가늘게 잡혀있거나 나있다. ③ 상냥하고 부드럽다. (이하 생략)

국어사전은 우리 겨레의 삶과 문화, 경험, 정서가 녹아 들어가 있는 우리말을 담는 그릇이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언어관과 언어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언어문화의 차이로 국어사전도 달라졌다. 사전학적 측면에서 남한 사전이 문형 정보, 형태분석 정보, 어원 정보 등 언어 정보를 충실히 제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북한 사전은 언어 정보에 별다른 변화 없이 이념적 뜻풀이를 일부 포함하고 기본뜻, 반뜻으로 뜻풀이를 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3]

3) 일부 올림말에 기둥뜻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기둥뜻이란 하나의 어휘에 여러 갈라진 기본뜻이 있고 그것이 몇 개의 계열을 이룰 때, 그 각각의 계열을 대표하는 뜻이다. 이와 같이 뜻풀이를 기둥뜻, 기본뜻, 반뜻 세 층위로 구분하는 것은 《조선말사전》(1965)에서 시작되었다.



임보선

성균관대학교에서 음운론/국어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사업회 편찬전문위원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국어 어간말 자음군에 대한 통시적 연구」, 「남북 문장부호 규정의 비교와 통일 방안」, 「'문장부호 개정안'(2013)과 '문장부호법'(2010)의 비교」 등이 있다.

2023 겨레말 소식

인권헌장 · 윤리헌장 선포식 개최



사업회는 지난 1월 2일에 열린 2023년 시무식과 함께, 열린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으로 제정한 인권헌장 · 윤리헌장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임직원이 함께 인권헌장 및 윤리헌장을 선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사업회가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헌장에는 ▲인권 경영 실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인권 문화 정착 ▲이해 관계자의 인권 존중 ▲노사 간 공동 번영 지향 ▲인권 침해 구제 조치(이상 인권헌장)와 ▲남북 언어 문화 교류를 통한 통일 환경 조성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공정과 상생에 기초한 업무 수행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의 인격 존중 ▲적극적 공익 활동 참여(이상 윤리헌장)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사업회의 인권헌장과 윤리헌장은 사업회 홈페이지 내 열린경영 게시판에 공시되어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열린경영 게시판

사업회 민현식 이사장, '2023년 국제 모국어의 날 기념식' 축사



민현식 이사장은 지난 2월 21일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모국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델와르 호세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석해 UN이 지정한 국제 모국어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민현식 이사장은 축사에서 "방글라데시 국민의 벵골어 사랑의 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언어환경과 모어 수호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공통점이 있는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양국의 언어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 공존의 지구촌을 위해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언어 수호를 위한 UN과 유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방글라데시 국민의 벵골어 수호를 위한 노력이 귀한 열매를 맺어 억압받는 수많은 소수 언어들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사업회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유네스코와 함께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하는 유네스코 ·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 모국어의 날 기념식에도 매년 참석하고 있다. 한편, UN의 '세계 토착어 10년(IDIL, 2022–2032)'에 동참하고 세계 토착어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4회 유네스코 ·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은 올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국제 모국어의 날:** 방글라데시에서는 벵골의 학생들이 1952년 2월 21일에 당시 파키스탄 자치령 정부가 우르두어를 강요하는 것에 시위를 벌이다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것을 기리고자 이 날을 언어 순교자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1999년 유네스코는 방글라데시의 제안으로 2월 21일을 국제 모국어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이 날을 기념하면서 언어 다양성 보존과 모어 기반 다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사업회 블로그
겨레말 현장

제84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제7대 남측편찬위원장 선출



사업회는 지난 2월 16일 제84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제7기 남측편찬위원이 위촉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임시 의장인 민현식 사업회 이사장과 김강출(사업회 편찬실장), 김재용(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도원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박덕규(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이승하(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임보선(사업회 전문위원),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편찬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회 일반 현황 보고와 함께 올 6월 발간될 예정인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통합본)》과 제4회 유네스코 ·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사업회 자문위원단 구성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상정된 제7기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에서 조남호 명지대학교 교수가 제7대 남측편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조남호 남측편찬위원장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을 역임했고, 2005년 제1기 남측편찬위원회부터 제6기까지 남측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공동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북측편찬위원회와의 오랜 교류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 제7대 편찬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12월 20일까지이다.

《전문용어 사전》 편찬을 위한 학술 연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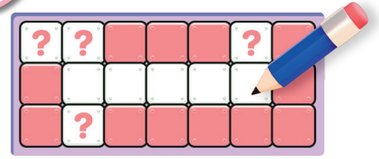


사업회는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학술적 자문을 구하고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술 연찬회(아래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는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지역어 원고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강릉 방언 자료사전》을 편찬한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을 편찬한 곽충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사전 편찬과 지역어를 주제로 하는 연찬회를 두 차례 열었다.

올해는 총 4명의 전문가와 함께 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로 지난 3월 2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아래 'KISTI') 최현규 책임연구원을 연사로 초청했다. 최현규 책임연구원은 KISTI에서 미래정책연구부장, 정책기획본부장 등을 지냈고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북한ICT연구회 회장, NK테크 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오랜 시간 북한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용어 정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남북한 전문용어 자료 구축의 경험과 실태, 과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사업회가 추진하는 《전문용어 사전》 편찬에 관해 남북이 직접 만나 사전을 편찬하는 기관으로서 사업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향후 사업회는 《전문용어 사전》 편찬을 위해 KISTI와 같이 분야별 전문영역에서 남북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진행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별 기관이 보유한 남북 전문용어 관련 자료를 통합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용어 사전》에 수록될 올림말을 선정하고 집필해 나갈 예정이다.

겨레말 낱말 풀이



겨레말 낱말 풀이는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과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dic.gyeoremal.or.kr)'에 수록된 단어로 제작되었습니다.

① 나라 이름 '튀르키예'를 북녘에서 이르는 말.
예) {○○○○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딴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사이에 놓여있어 면적의 절반은 유럽에, 절반은 아시아에 위치하고있다.《대륙을 련결해주는 이스딴불》(북)
* 남녘에서는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2년 6월, '터키'의 국명을 '튀르키예(공화국)'로 공식 변경했다. 북녘에서는 1990년대까지 '토이기'와 '이 이름'을 함께 쓰다가 이후 '이 이름'으로 정해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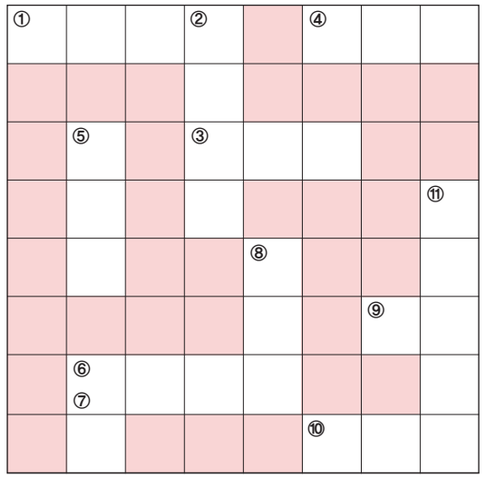
② '리듬체조'의 북녘말. '륜(후프), 댕기(리본), 뜀줄(로프), 곤봉, 공'의 종목이 있다.
예) {○○체조는} 맨손 또는 기재를 가지고 음악에 맞추어 예술적으로 수행하는 녀자체조경기종목이다.《○○체조의 발생과 발전》(북)

③ 체육 경기장, 훈련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 구역으로 '선수촌'의 북녘말.
예) 어느새 지붕을 얹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생겨나 오늘은 하나의 완전한 체육시설을 갖춘 {○○○을} 이루었다.《만경대행 버스안에서》(북)

④ 북녘에서 '청바지'를 달리 이르는 말.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는 2006년 처음 '이 단어'가, 2017년에 '청바지'가 처음 등재되었다.
예)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나이크신발이나 {○○○를} 사고있다.《서방의 원조와 협력이 가져다준 후과》(북)

⑤ 북녘에서 소학교 1학년을 놀려 이르는 말. 아직 다 깨우치지 못한 어린 학년을 뜻한다.
예) '네가 1학년이면 난 2학년이 된단말이야. 그리고 인차 소년단에 입단해. 너 소년단원하고 {○○○생하고} 같은줄아니?'《건설장 놀이》(북)

⑥ 필기구 '샤프'를 이르는 북녘말. 플라스틱(합성수지)으로 만들어진 연필을 뜻한다.
예) 홍준이는 벌쭉 웃더니 딱딱 소리가 나게 {○○○○} 누르개를 눌러 연필심도 뽑아보고 수첩장에 사각사각 글도 써봅니다.《조국의 모습》(북)



⑦ 남달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남녘에서는 '영재교육', 북녘에서는 '○○교육'이라고 한다.
예) 음악이나 미술, 문학과 같은 특출한 신동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어린이들을 잘 키우려면》(북)

⑧ 필기구 '볼펜'의 북녘말.
예) 중석은 {○○○을} 쥐고 사업계획에 강섭의 집수리문제에 대하여 써넣었다.《비결》(북)

⑨ '가르마'를 이르는 북녘말. 북녘에서 '가리마'라고도 한다.
예) {○○을} 낸 한쪽 머리가 이마를 내리덮고 얼굴이 대리석처럼 창백한 야스기는 슬금슬금 교탁앞으로 다가가….《영원한 미소》(북)

⑩ 빙상경기 종목의 하나로 '하키'를 이르는 북녘말.
예) {○○○선수들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백병전을 벌린다.《정든 고장》(북)

⑪ 북녘에서 '나무늘보'를 이르는 말로 동작이 매우 느린 특성을 따 붙인 이름이다.
예) 숲속에는 원숭이, {○○○○○}, 식의수, 곰 그리고 많은 새들과 파충류, 곤충류 등이 있다.《지리》(북)

정 답

①튀르끼예 ②예술체조 ③체육촌 ④진바지 ⑤깰학년
⑥수지연필 ⑦수재 ⑧원주필 ⑨가름 ⑩호케이
⑪게으름뱅이

2023년
함께 만드는 《겨레말》

새롭게 단장한 2023년 《겨레말》 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를 적어 보내 주세요.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총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겨레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 의견	참여 방법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 **참여 기한:** 2023년 5월 31일까지 • **당첨자 상품:** 문화상품권(5명) • **필수 기재 사항:** 이름, 연락처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선정된 독자 의견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https://bit.ly/3Mnsym5



친절한 남북 언어 검색 서비스
스마트폰 앱에서
남녘말 북녘말을 검색해 보세요!

'생활용어', '표기차이', '의미차이' 갈래별 어휘 검색 서비스,
카드뉴스, 겨레말TV, 겨레말 퀴즈까지 겨레말큰사전에서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애플 앱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www.gyeoremal.or.kr

/gyeoremal1

@gyeoremaltv

@gyeoremalsajeon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